



미시적 언어 정책 측면에서 본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신나나 (차의과학대학교) · 이문우 (연세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ch 5, 2024
Revised: March 12, 2024
Accepted: March 16, 2024

Nana Shin (First author)
Lecturer, College of Liberal Arts,
CHA University,
nnlove0914@gmail.com

Mun Woo Lee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munwoo@yonsei.ac.kr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ABSTRACT

Shin, Nana and Mun Woo Lee. 2024.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211-235.

This study addressed two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perceptions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at home among mothers aged 20–35 years who had experienced the 7th curriculum and were raising children younger than six years. A survey of 127 people was conducted, followed by five interviews with four selected participants. The mothers hoped that their infant children would be exposed to English early in life and thus would naturally acquire the language; this hope was related to the mothers' difficulty in speaking English, despite having received education in English for many years. In terms of practice, 80 of the 127 participants (63%) had provided English education to their children. The mothers had used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media, including television or radio, textbooks, teaching aids, fairy tales, video media, and workbooks; they had also used song and hand play to expose their children to English in a way that accounted for children's short attention spans. However, due to a lack of confidence in their English skills, the mothers also appeared to rel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or private edu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ma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line with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for Englis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KEYWORDS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erceptions and practices,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으로서 교실 밖의 영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더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마송희 2008). 특히, 영유아의 교육 과정을 제시한 ‘누리과정’에서는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음악, 감정, 인성 등의 활동을 구체화하여 누리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였는데, 여기에 영어영역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영유아인 시기에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et al. 2020).

특히, 유아의 영어교육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실행 나이를 점차 낮추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우 자녀의 영어교육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김용환 2012). 다시 말해, 영어 학습에 대한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기 어려운 나이인 유아기 자녀 대신 학습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엄마이며 그들은 영어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교육에 대한 엄마의 인식과 교육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결정권자이자 교육기관과 함께 영어교육을 하는 공동 교육자임을 보여준다(김혜미 2017). 엄마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관리자’이며(Park and Abelmann 2004), 지속적인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Comer and Haynes 1991), 엄마의 영어 수준과 자녀 영어 학습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를 통해(이귀옥, 우남희 2008), 엄마는 명실공히 유아 영어 학습의 효과적인 ‘조력자’ 또는 ‘선택자’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 영어교육의 연구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연구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실태, 조기 영어교육,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 원장, 유아의 인식에 대한 연구였다(김민화, 유연옥 2012, 김용환 2012, 마송희 2008, 배미숙, 서현아 2011, 심영숙 2019, 이연승, 이연정 2018). 또한, 유아 영어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에 있어 학부모나 교사, 원장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나(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이석금, 이진희 2015, 이연승, 이연정 2018, 이윤진, 이규림, 이정아 2014) 교수법(박한나 2017, 황원길 2004), 디지털 매체에 관련한 연구(신지원 2016, 정민수 2016)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실제적 가정 내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엄마’를 통해서 행해지는 학습의 실체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미만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어떠한 영어교육방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대상을 만 35세를 설정한 이유는 해당 대상의 경우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 학습 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에 해당하므로 문법 중심이 아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영어 학습을 본인들 스스로 경험해 보았고, 세계화로 인한 영어의 중요성 또한 몸소 겪어본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엄마들의 인식과 사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교육의 선택 방법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그들의 학습의 경험이 자녀의 영어 학습을 위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5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만 35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행하는 가정 내 영어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2. 문헌 연구

2.1 언어정책

2.1.1 거시적 언어정책

언어정책은 전통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정부의 큰 그림, 즉, 국가적 형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실현하며 이에 언어정책을 정부에서 직접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Taylor-Leech and Liddicoat 2014).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교육에 있어 국가가 직접 교육과정을 제정, 수립하며 실제적인 과정을 도입하여 언어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언어의 거시적 정책은 실제 언어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개인이 공유하는 신념 또는 언어관, 집단 안의 다른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과 사용자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 언어정책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정책 기관 혹은 관련 단체가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수단, 네덜란드, 벨기에, 수리남, 한국, 일본 등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0). 대부분 언어정책 기관은 정부의 지지를 받아 운영, 교육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되기도 하고, 일부 기관들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의 기관은 언어의 확산 및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치며 말을 가꾸거나 언어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용어를 개발하며 공통으로 사전을 출간하여 언어의 사용에 혼란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한다(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0).

한편, 언어교육에 관한 정책은 언어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교육정책은 1883년 한국 영어교육의 시작점에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문법·번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용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한 사항으로 강조되고, 형식과 내용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세계화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 없이 영어교육은 급성장하였다. 특히, 영어교육이 시행되어온 과정은 그 주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었다. 제1차 교육 시기(-1963)는 영어와 국어의 상이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어의 기능적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교육 시기(1963-1973)는 언어의 4가지 영역에(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대한 새로운 형태를 중요시하였다. 제3차 교육 시기(1973-1981)는 문형 표시와 성분의 구조, 문장의 종류 등 문법을 강조하던 시기였으며, 제4차 교육 시기(1981-1987)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세분되면서 처음으로 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신동일, 심우진 2011). 제5차 교육의 시기는 1987년부터 1992년 분류이며 제6차

교육 시기(1992-1997)는 의사소통이 강조되었으나 입시체도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제7차 교육 시기(1997-현재)에 이르러 비로소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을 실행할 것으로 규정한 시기로 볼 수 있다(신동일, 심우진 2011).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 기본 방향은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 동기, 자신감 유지,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와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며 기타 영어 교과 세부 목표에 따른 학교급별 목표를 가진다(교육부 2013). 본 연구에 참여하는 만 35세 미만의 엄마들은 이러한 국가 수준의 7차 영어교육정책에 의해 교육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전에 문법을 강조한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와는 다른 영어교육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2.1.2 미시적 언어정책

언어정책의 거시적 수준은 사회 구조나 집단, 법률, 기관, 그리고 제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황용주 2011, Taylor-Leech and Liddicoat, 2014),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각각의 개인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다(Higgins and Brady 2016). 특히, 거시적 언어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의 언어정책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수이며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의 상대인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 이는 거시적 행위로만 언어정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위로부터 제시된 집행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도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icento 2000).

미시적 언어정책은 의사결정의 거시적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실제적 정책에 기초가 되는 사상, 가치,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언어정책의 모습을 의미한다(Liddicoat 2014). 미시적 언어정책은 주로 지방 기관과 종교단체, 조합, 학교, 가족, 개인 등의 대리인과 지방 및 개인 수준의 영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의 거시적 정책은 표준화된 결과를 기대하는 반면에, 미시적 언어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시적 언어정책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 언어정책의 최종 성공은 하향식 거시적 언어정책과 상향식 미시적 언어정책 사이의 조화, 화합, 일치, 합치 등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6).

즉, 아무리 국가 수준의 언어정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시적 언어정책의 효과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물론 언어교육정책에서 있어서도 해당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의 수혜 세대라고 하여도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거시적 영어교육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곧 국가 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의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유아 영어교육

2.2.1 유아 영어교육 정책과 실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아에게 필요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만들어 3~5세의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로 학부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를 포함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교육과정 시간에서는 모든 특성화 활동을 금지하였다(이윤진 등 2014). 이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교육부 2018).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영어교육 금지를 보류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기관의 과도한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써 시행하는 영어교육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영어 관련 방과 후 활동 또는 특별활동을 구성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김용환 2012, 김태영, 이희진 2015, 김혜미 2017, 배미숙, 서현아 2011).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의 학부모, 유치원 원장과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8,6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 기관의 72.8%가 유아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부터 5세의 유아 조기 영어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어 사교육보다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받는 유아의 수가 더 많았고 두 번째로는 방문 교사에게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원 2009).

또한, 유아 영어교육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유아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값비싼 ‘전일제 유아학원, 영어 놀이학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2017년 기준 전국 47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유아교육 기관의 경우, 영어교육 전문기관에서 파견한 교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별활동으로 운영하여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은 유아교육 기관의 일과를 방해하고 유아교육 과정과 통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마송희 2008). 이는 유아교육학자나 영어교육 학자들조차 아직 유아 영어교육의 실행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적절한 유아 영어교육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연승, 이연정 2018).

2.2.2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 인식연구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처음 연구의 수는 미미했으나 향후 2000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마송희 2008). 이 연구들 중 대부분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실태연구가 다수이지만(김용환 2012, 김혜미 2017, 배미숙, 서현아 2011, 심영숙 2018, 이석금, 이진희 2015, Lee et al. 2020) 문제는 유아 영어교육의 실행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알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며, 문헌 연구가 다수일 뿐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학부모의 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는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유아 영어교육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전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학부모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인식조사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이다.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사하여 유아 영어교육에 찬반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전반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출판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서 2000년대 찬성과 반대에 입각한 논문 총 19편을(찬성 10편, 반대 9편)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일상에서 영어입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은 유아의 외국어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마송희 2008). 같은 맥락으로, 이상기, 이창희, 박현민(201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아 발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누리과정과 연계한 동화, 동요를 활용한 유아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양상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활동 중심 수업과 학습 매체 사용을 통한 반복으로 빈도 중심의 교수학습을 구현하였고, 연구 참여 아동들의 수업 참여도와 인지의 측면 그리고 언어 성취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유아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주요 의견으로는 유아기 영어교육은 학습자인 유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견과 모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학습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윤진 등 2014, 하연희 2004).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두뇌 발달 문제나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도하거나 강제적인 영어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기 영어 학습을 실행하며 구체적인 학습량이나 교수 방법이 없어 교육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어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의 고른 발달에 방해된다고 보았으며 유아기에는 영어교육보다 모국어 형성과 유아의 시기에 해야 하는 필수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모국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제적인 학습은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인식 연구에서 화두가 되는 논의 사항은 바로 유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나이이다. 김용환 (2012)이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영어교육에 대해 450명의 어머니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행 나이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한 나이는 만 4세가 108명으로 27.6%의 수치였으며, 만 5세가 86명으로 21.9%로 나타났고, 만 3세가 71명으로 18.1%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나 학습경험에 따라 영어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 선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영어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만 4세 유아와 만 7세 유아의 비교하여, 만 7세의 영어 학습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통해 자녀의 나이가

취학에 가까운 시기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 6세 이후가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나이는 만 4세(10명)와 만 7세(13명)이었고 연구에서 실행한 영어교육의 횟수가 8회라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윤진 등 2014). 이 밖에 초등학교 1학년이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로 가장 알맞다고 주장하는 연구(신동주 2007) 혹은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만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시작 시기로 적절하다는 연구 등의 연구가 있다(이윤진 등 201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연구를 빅 데이터와 사회연결망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키워드와 교육 매체에 관련된 키워드가 분석되었고 사회연결망에서는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이 드러났다(강승지 외 2018). 이를 통해 ‘엄마’는 영어교육의 담론을 이끄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할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하며 미시적 차원의 영어교육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아 영어교육’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전홍주 2011).

이렇듯 기존의 유아 영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연구들은 유아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것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대상은 학부모 중 특히 엄마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 영어교육이라는 현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의 범주가 ‘인식’의 측면에서 멈추고 있어,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실제로 어떠한 유아 영어교육의 형태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엄마들의 나이나 학력, 지역 등 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도 다양하여 그들의 인식을 보다 거시적인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엄마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영어교육 정책의 수혜자로서 엄마들이 어떻게 자녀의 영어교육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총체적인 시각으로 유아의 영어교육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P시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27명의 엄마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7차 교육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나이는 만 20세부터 만 3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중 한 명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참여자들 중 4명을 선발하여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만 20세부터 25세 미만 3명(2.4%), 만 25세부터 30세 미만 25명(19.7%), 만

30세부터 35세 미만 99명(78%)이었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36명(28.3%), 전문대졸업자가(2, 3년제) 37명(29.1%), 4년제 졸업자가 46명(36.2%), 기타가 8명이었다(6.3%). 기타의 경우 대학원 졸업, 중퇴, 전문대 중퇴 등의 기타 사항이 있었다. 또한, 자녀의 나이의 경우 응답자 중, 만 0세에서 2세가 68명으로(53.5)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며, 만 3세가 41명(32.3%)으로 두 번째로 높은 자녀의 나이 수를 보였으며 만 5세가 21명(16.5%), 만 6세가 18명(14.2%), 만 4세가 16명이었다(12.6%). 총 자녀의 숫자가 127명을 넘는 이유는 자녀의 수가 1명 이상일 때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27명의 특성을 보여주며, 소득 수준과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기타 사항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의 배경정보

구분	범주	빈도(N)	비율(%)
엄마의 나이	만 20세 미만	0	0
	만 20-25세 미만	3	2.4
	만 25-30세 미만	25	19.7
	만 30-35세 미만	99	78.0
자녀의 나이	만 0-2세	68	53.5
	만 3세	41	32.3
	만 4세	16	12.6
	만 5세	21	16.5
	만 6세	18	14.2
엄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36	28.3
	전문대졸업(2,3년제)	37	29.1
	4년제 졸업	46	36.2
	기타	8	6.3
가정소득 수준	200미만	7	5.5
	200-300	30	23.6
	300-400	41	32.3
	400-500	24	18.9
	500 이상	25	19.7
취업여부	유	25	44.9
	무	61	48.0
	기타(육아휴직 등)	9	7.1
계		127	100.0

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참여자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4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양육하는 자녀의 수와 나이가 모두 다양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4명의 기본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인터뷰 참가자	나이	학력	경제 수준	자녀 나이
엄마 A	만31세	전문대 중퇴	중층	6세, 4세, 2세
엄마 B	만31세	학사 졸업	중층	4세, 11세
엄마 C	만31세	3년제 졸업	중층	4세, 2세
엄마 D	만30세	3년제 졸업	중상층	3세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중산층의 경제적 수준을 보였으며, 자녀 중 4세의 유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세가 2명, 3세 1명, 6세 1명, 11세가 1명으로 자녀의 수는 총 8명이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 도구는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주로 이숙자(200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와 더불어 김혜미(2017), 이연승, 이연정(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질문의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배경,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지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사항

구분	설문 내용	번호	문항 개수
기초사항 (사전 조사)	일반현황	1~5	5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인식	1~12	17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방법	교육방법	13~20	8
서술형	교육방법	서술형	1
합계			31

설문조사의 기본 사항은 설문 참여자인 엄마의 나이, 최종학력, 취업 여부, 자녀의 나이, 가계의 소득 수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 관련 문항은 총 17개로 구성하였으며 상위 번호 질문에 대한 연계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엄마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시기와 횟수,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을 묻는 말로 구성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은 총 8개로 구성하였으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교육하는 방법이나 사용 매체, 교육 방법의 선택 등의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 참여자의 자신만의 영어교육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정규 인터뷰 5차례, 개인별 일정을 고려한 개별 면담 1회씩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별도의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여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인터뷰 질문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4. 심층 면담 주요 질문 목록

<p>■ 인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의 자녀 영어교육을 처음 한 나이는 언제입니까? 2. 영어교육을 한다면 가장 적당한 나이는 언제입니까? 3.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나이를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하거나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인식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p>■ 교육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가 현재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2. 교육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얻으십니까? 4.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3.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순차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양적 자료의 결과 분석 후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의 결과분석은 단순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 근거이론을 선택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사실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 연구의 결과는 주로 단순기술통계로 기존 인식의 조사 연구는 대상의 나이가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는 엄마의 나이를 20대에서 30대로 설정하였으며 한정적 연령분포를 보인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단순기술통계로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설문 참여자의 실제적 입장과 수치, 그리고 연구 패러다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 연구의 단순 명료화 한 데이터에서 놓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전사를 기본 방법으로 개방 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물이 함축하고 있는 범위를 찾아내어 다양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분산된 자료를 범주화 하여 주요 주제를 추출하였다. 다시 말해,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가 유사한 범주로 결과를 분류하여 특정 텍스트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통된 주제나 범주를 분석하여 대화의 맥락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질문과 응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4.1.1 전반적이지만 모호한 찬성의 기초

우선,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설문 참가자들은 ‘매우 찬성한다’에 41명(32.3%) 응답하였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찬성한다’에 응답한 인원이 76명으로(59.8%)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인원은 8명이며(6.3%), 여건이 미비하여 반대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총 2명으로 각 0.8%를 차지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응답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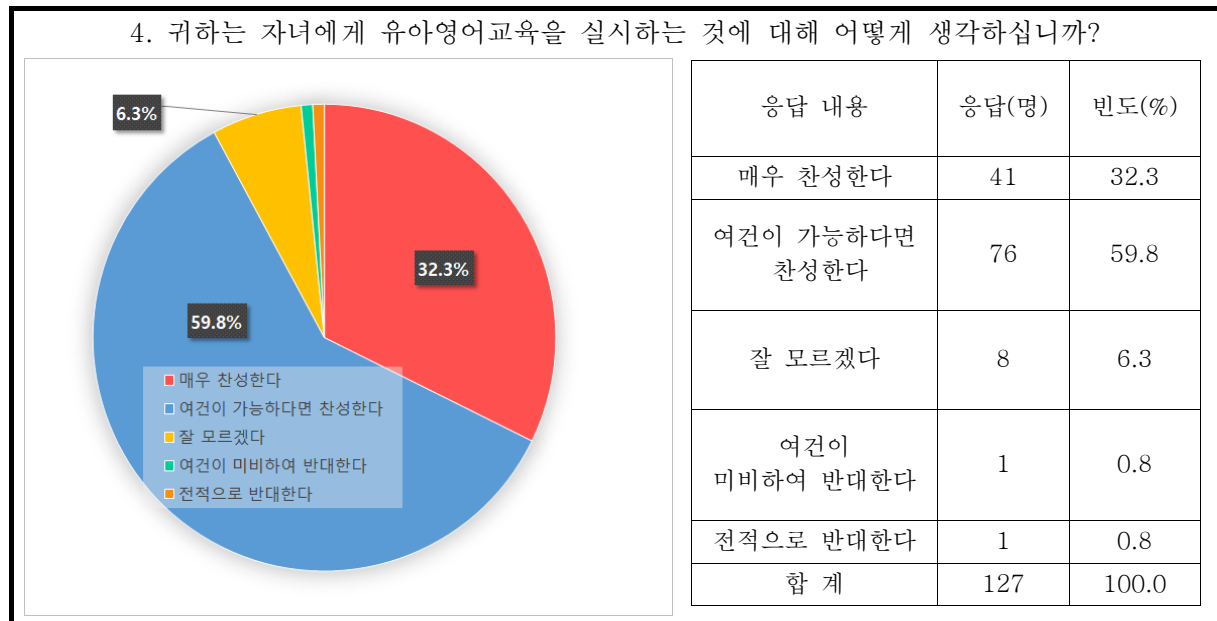


그림 1. 유아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과반수가 영어교육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찬성의견을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여건이 되면 찬성한다’에 응답한 76명 중 찬성의 이유를 묻는 말에서(중복선택 가능) ‘영어는 조기교육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무려 41명이었고, ‘가정에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에 응답한 이가 28명이었다. 그 밖에 ‘영미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4명,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더욱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에 응답한 인원이 1명이었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은 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언어의 습득과 노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의견으로 ‘여건이 미비하여 반대한다’에 응답한 1명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항목에 응답한 1명은 유아 영어교육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모국어 습득에 장애가 되므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두 응답자의 경우 모두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었으며 만 0세에서 2세의 자녀 1명, 만 3세 1명, 만 4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교육 정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였다. 경제 수준은 응답자 모두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치를 보였으며, 이들은 모두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행한 이력이나 경험이 전무후무한 경우였다.

이렇듯, 엄마들은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기초를 나타냈지만,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찬성의 기초가 사실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영상 매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한 영어 노출에 굉장히 관대하게 반응하였지만, 유아 영어교육의 실제적 영어교육 방법을 질문하거나 엄마의 입장과 의견을 묻는 말에서는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엄마들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내용이 없는 모호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비용을 들여 영어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매우 고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 제시된 엄마 D와 엄마 C의 인터뷰 내용도 이러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유아 때는 자아가 불안정해. 부모가 자신과 떨어지면 유아는 그때부터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하고 느낄 거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중요하지. 일찍 교육환경에 노출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나은 학습 상태를 보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의 상황,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엄마 D, 1차 인터뷰 발췌)

저렇게 비교로 보면 나는 반대 관점인 듯해. 아직 뚜렷한 주장이 없고 엄마 D가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해서. 딱히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굳이 스트레스 주면서 가르치고 싶지 않고 그냥 간단히 노출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노출 정도면 만족해.

(엄마 C, 1차 인터뷰 발췌)

엄마 D와 C 또한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였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노출은 그럴 수 있지만’ 와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언급하였고 ‘노출 정도면 만족해’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인터뷰 참여자가 유아의 영어교육에 반대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간주하기에 모호하며 오히려 조건적 찬성 측면의 응답을 하였다. 이 인터뷰 결과는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으로 유아의 영어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라는 개인이 영어 학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길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 수준의 대처가 어떠한 개인의 생각을 거쳐 실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해 모호하지만, 조건적 찬성의 모습을 보이는 엄마의 요구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예로 기존 유아의 영어교육은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된 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영어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마송희 2008). 그러나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은 점점 확대되어 현재 대부분의 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거시적 언어정책과 미시적 언어정책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시적 언어정책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개인이 실행하는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을 통해 유아 영어교육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직접

유아기 자녀의 언어교육에 관한 관심을 두고 개인이 미시적 언어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의지에 기반하여 각 개인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iggins and Brady 2016).

4.1.2 초 3보다는 훨씬 더 빠른 나이

유아기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한다면 가장 적당한 나이가 몇 세 인지 질의한 문항에서 만 0세부터 2세에 총 26명이(20.5%) 응답하였고, 만 3세에 35명(27.6%) 응답하였다. 또한, 만 4세 18명(14.2%), 만 5세가 21명으로(16.5%) 나타났으며 만 6세가 19명이었다(15%). 응답자 중, 기타의 의견이 8명으로 6.3%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의견 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한글을 알았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 ‘교육은 만 3세부터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이나 엄마가 읽어주는 등의 노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 노출은 유아기에도 가능하지만, 교육이라면 아이가 배움을 선택할 수 있을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응답한 바로는 ‘흥미, 관심, 재미를 보이거나 느낄 때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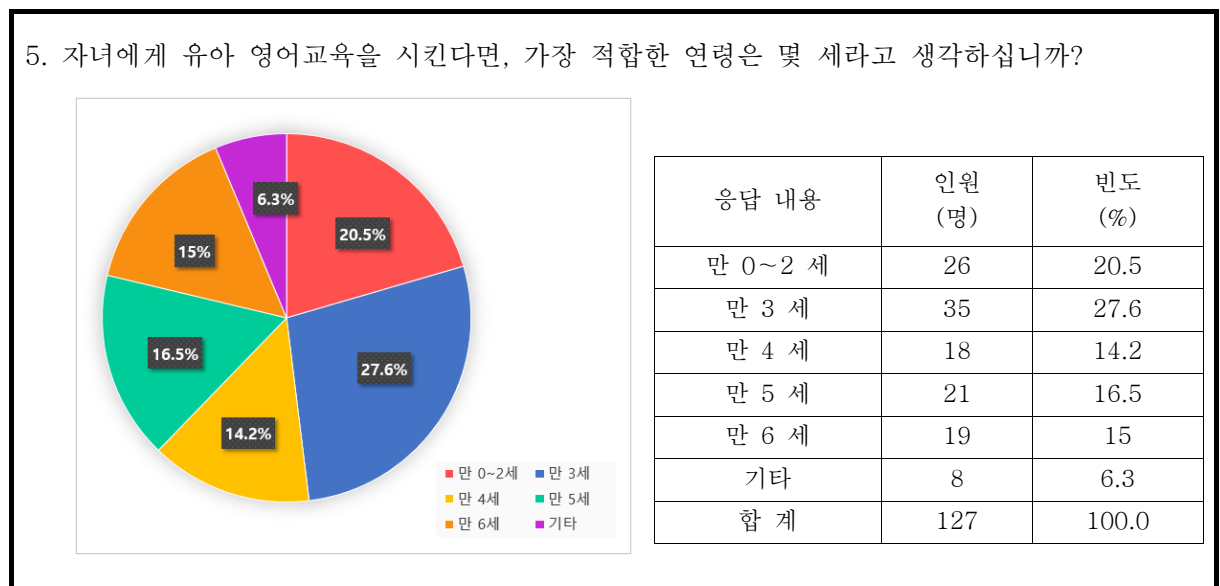


그림 2. 유아 영어교육에 적합한 나이에 관한 의견

인터뷰 참여자의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나이와 사유로 유아 영어교육에 적절한 나이를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만 3세요. 큰아이가 확실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따라 하게 된 시기라서. 그전엔 어린이집에서 배운 걸 따라 하긴 해도 영어 만화나 교육적인 것을 틀어줘도 관심은 둘째고 영어 아니라고 꺼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최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엄마 A, 3차 인터뷰 발췌)

노출 말고 딱 교육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출은 만 4세 교육은 만 6세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 습득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아이가 10살인데요. 일찍이 만 4세부터 영어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한국어가 더 능숙했다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엄마 B, 3차 인터뷰 발췌)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는 때와 한국어를 이해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를 영어 노출에 가장 효과적인 나이로 보았다. 이는 유아가 어느 정도 모국어를 구사하고 엄마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인지적 발달사항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마다 자녀의 발달 사항이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응답을 보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엄마 C는 만 5세, 엄마 D는 3세에서 4세 사이의 나이를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인터뷰 참여자들 모두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음 영어 학습을 시작한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른 나이인 유아기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한 제7차 교육과정은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 교육과정이다(최유정 2008). 이것은 제7차 영어 교과서의 편성 목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교과과정은 기본적 영어교육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화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영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최유정 2008). 제7차 교육과정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엄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의사소통함양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영어를 더욱 친숙하게 하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공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나이인 만 8-9세 보다는 훨씬 더 일찍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어교육 경험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은 영어 학습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전 학습 경험은 교실 환경 이외의 영어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적인 제약과 교사의 영어 구사 능력 미흡, 절대적인 교육 시간 부족과 주입식 교육의 문제 등으로 집결되었으며, 이것들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했던 엄마들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노력에 비해 개인적 수준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어 학습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효과적 의사소통의 구사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는데, 일례로, 엄마 D의 경우, 직업과 진로를 위한 시험 준비를 위해 주입식의 교육 방법으로 이미 많은 영어 학습을 해보았고 단어를 암기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구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인이 10년간 공교육에서 영어 학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영어 구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어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더 어린 나이에 영어를 노출하여 영어를 친숙하게 여기며 향후 자녀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2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방법

4.2.1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어교육 방식

총 127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63%인 80명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입한 영어교재'의 문항의 응답은 '매우 쓸모 있다'에 응답한 인원은 5명이며(3.9%), '쓸모 있다'에 응답한 인원은 39명이었다(30.5%). 하지만 이 응답의 경우, '쓸모없다'로 응답한 인원이 10명이었으며(7.8%), '전혀 쓸모없다'으로 응답한 인원은 2명으로(1.6%) 다른 설문조사 응답과는 다르게 교육 방법으로서의 선택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 의견 모두를 포함한 사항이었다.

구입한 영어교재에 대한 교육방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나이는 만 25세에서 30세 미만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모두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었다. 자녀의 나이는 모두 다양하였으나 0세에서 만 2세 미만이 5명, 만 3세 미만이 4명으로 제일 많았다. 영어교재 구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연구 참여자의 자녀 나이는 0세에서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응답은 엄마들이 유아기인 자녀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책보다는 운율, 노래, 손 유희, 챗트 등의 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구입한 영어교재가 '쓸모없다'에 응답한 10명 중 9명이 실제 사용하는 가정 내 영어교육 방법으로 '노래, 손 유희 방법의 교육'을 선택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또한 자신만의 가정 내 교육 방법을 묻는 추가 서술형 질문에서 '수면 시, 영어 노래나 단어 들려주기', '어린이집에서 친숙하게 배워온 후 따로 영어에 흥미를 보일 경우 그때 학습지나 교재를 알아볼 것 같다'라는 의견과, '영어 동요 틀어주며 그에 맞춰 율동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영어 노래나 챗트는 유아에게 효과적인 노출 방법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기관과 가정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사설 영어교육 기관'의 문항이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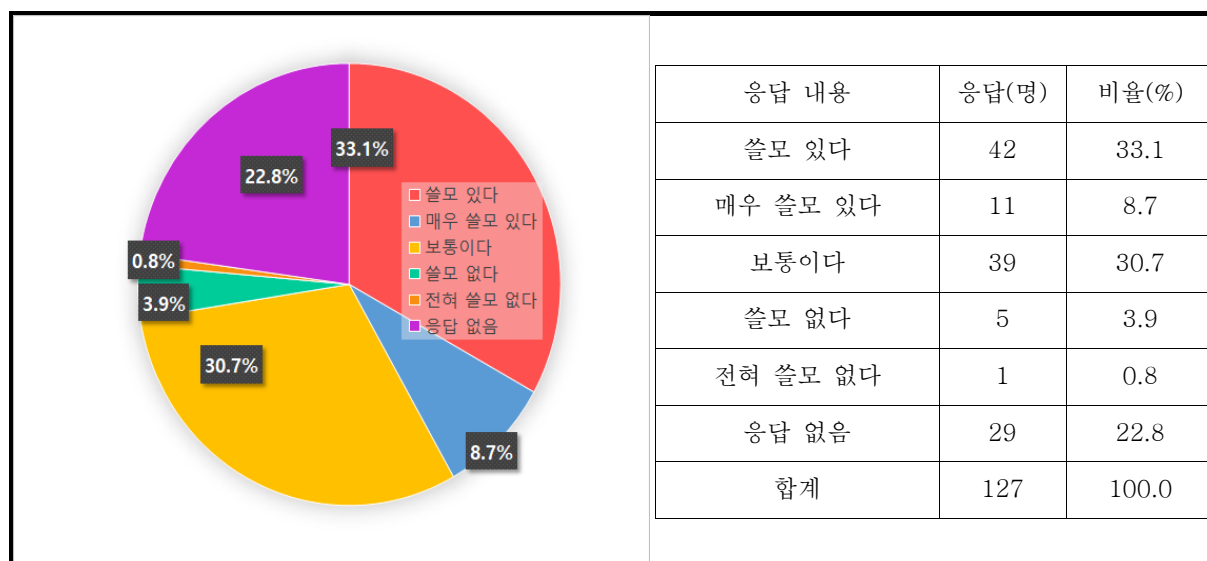


그림 3. 사설 영어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설문 참여자들은 사설 영어교육 기관이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는 ‘쓸모 있다’와 ‘매우 쓸모 있다’를 합산하였을 때, 총 53명이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나이는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이었다. 소득 상황으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18명으로 제일 많았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10명,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를 교육하는 사설 기관을 활용하는 만큼 주로 300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였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영어교육은 학원, 그룹과의, 개인 지도, 학습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사설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이윤진 등 2014)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응답인 영어교육의 방식으로 선택한 응답은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었다. 응답의 수치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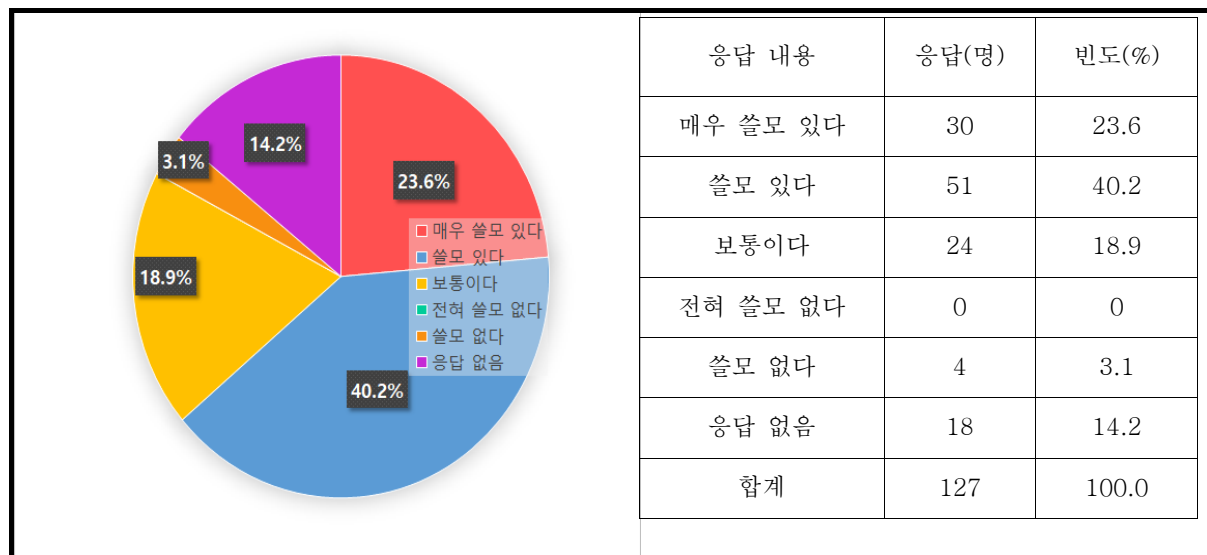


그림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한 의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육은 엄마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설문조사의 응답 중 ‘매우 쓸모 있다’, ‘쓸모 있다’로 응답한 인원은 총 81명으로 이 중, 30명은 4년제 졸업자로서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의 연구 참여자가 총 18명이고, 미취업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 교육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 학사 소지자이며 직업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의 참여도와 엄마의 선호도가 높은 특별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실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영유아의 45.4%가 영어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비율은 2살과 3살 사이 대폭 증가하여 3살에서 4살의 경우 평균 60%에 육박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 특별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체육’에 이어 ‘영어’프로그램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기관에서 영어교육의 수요가 많으며 아이가 교육기관에 입학한 후, 프로그램 일부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서 영어교육에 더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김혜미 2017).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자신이 선호하는 영어교육 방법 방식에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구입한 영어교재 4점, 어린이집 1점, 기타로 맘 카페 2점, 영상 앱 4점! 교재는 엄마들 입소문에 좋은 거 학원 보내는 곳에서 사용하는 교재 비슷하게 쓰고 블로그나 맘 카페에서 정보 많이 업로드 되는 것, 글 적어서 아이들 영어교육 공유하고, ***틀어서 검색해서 구독 수 많은 거 영어 콘텐츠 시청하게 해.

(엄마 B, 4차 인터뷰 발췌)

난 TV 3점, 이웃 2점, 어린이집 3점! 나도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사용해서 교육방식을 얻지, 특히, ***틀어주고 아이들 만화 틀어줘. 거기서 쿵**, 뽀**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 틀어서 보고, 어떤 외국 아저씨 놀이 영상 보고 어린이집에서도 배워오고 하니까 충분한 노출이지!

(엄마 C, 4차 인터뷰 발췌)

엄마 B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영어교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엄마 B의 기타 의견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학습, 영어나 언어 관련 서적과 설명보다 인기가 많은 영상 매체 애플리케이션 구독 수를 따른 학습을 따라가며 수업하면 비교적 쉽게 영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정보를 자신의 교육관과 비교해보고 엄마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 영상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팁이나 공부법, 학원 강사들의 생생한 인터뷰나 ‘엄마표’ 영어교육법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 영어교육에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신지원 2016),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하며 어떠한 콘텐츠가 좋은지 자신의 방법과 타인의 방법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용하는 엄마들의 행동은 Lee 등 (2020)의 연구에서 보여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남과 비교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유아 영어교육이라는 과정과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엄마 D의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5점으로 단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엄마 D의 경우, 자녀의 영어 학습을 운영할 중상층 정도의 경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 중인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육아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 D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경험을 기관에서 해줄 수 있고, 부담 없이 영어를 노출할 수 있어 상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노출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엄마 D는 자신의 생애에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암기를 기본으로 한 영어 학습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유아인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경험을 전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엄마 D의 이전 영어 학습경험으로 생긴 영어에 대한 방어기제가 자녀를 영어교육에 노출하는 시점에서 발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엄마 D는 유아 교육기관의 영어교육 지침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전반적인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정보를 교육기관에서 습득하는

점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이 사항은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도 영어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아 영어교육 방법이기도 하였다.

4.2.2 ‘엄마표 영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영어를 구체적인 ‘교육’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간과 횟수가 명확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를 ‘노출’하는 방법에는 뚜렷이 정해진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엄마들 자신이 영어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나 학습지 또는 사실 영어교육 기관에서 주는 자료를 통한 노출만을 고수하고 있는 특징과 직결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모두 제7차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은 세대이며, 이 교육과정이 목적하는 바는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의 함양이 분명하지만(최유정 2008),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전반적으로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듯 영어에 대한 엄마 자신의 자신감 결여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때, 자신보다 더 전문가라 생각하는 방법 또는 매체로 교육기관을 통한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자신이 영어교육을 고심하여 학습하는 모습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때도 있었고, 사교육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실제적 영어교육 방법이다.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해 나만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냥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기며 습득했으면 해. 영어 동요 책, 짧은 영어 노래 반복적으로 불러주고 어린이집에서 배운 영어, 책, 포스터를 가정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붙여주고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웅얼이처럼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같이 알아보며 흥미를 지속시켜주고 있어.

(엄마 B, 개별인터뷰 발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노출과 영어책 읽어주기 이외에는 모국어가 완성되기 이전이라 하지 않는 편이야. 아이와 함께 길을 걷거나 운전 중에 사물의 이름을 영어로 알려주긴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아이가 싫다고 표현하면 강요하지 않아. 영어가 싫어질 수 있으니 자발적 참여일 때만 하고 있어.

(엄마 D, 개별인터뷰 발췌)

엄마 B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학한 첫 아이를 양육한 경험을 통해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첫 자녀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영어 읽기의 구체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읽기를 통해 문장 전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문장 내 단어를 습득하고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며 모국어 혹은 영어, 모든 언어는 ‘읽기’가 중요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기에 있는 둘째 자녀의 학습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모국어의 발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의 영어

읽기는 무리라 판단하였고 대체활동으로 노출에 초점을 둔 듣기와 시각적 자극을 통한 영상 보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엄마 D의 경우, 인터뷰의 시작과 끝 모두 같은 입장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항의 영어교육은 하지 않는다’로 일관하였다. 그런데도 영어 노출에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녀가 노출을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으로 인식하거나 싫어한다면 즉시 영어 관련 활동이나 교육을 중단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엄마가 자녀의 발달사항을 반영하고 유아기인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어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행동이기도 하였다. 유아의 성장에 저해될 만한 요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나 강압적 태도 등을 최대한 지양하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노출을 해주어야 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엄마 A의 경우 호기심이 생겨 영어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물어보는 첫째를 위해 영어 학습지를 시행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자녀가 흥미를 보인 이상 관심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어교육을 이미 시행해본 지인을 통해 영어교육의 방식과 방법에 대한 실제적 과정을 다수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후기나 교육 방법 그리고 매체별 장, 단점을 활용하여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엄마 C의 경우에는 노출은 당연히 필요하고,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서 사는 우리가 영어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영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진로의 경우에는 못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자신은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입식으로 영어를 외우고 쓸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자녀의 경우 원하는 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아기의 영어 노출에는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반응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엄마들 4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어학습의 경험이 있고 정규 영어교육 과정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영어 노출에 대해서는 찬성의 견해를 보이면서도 영어교육 방법을 구사하거나 노출하는 것에 대한 개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반면에,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강압적인 영어 학습의 시행을 지양하였고 유아가 원할 때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노래, 손유희, 동화 읽기, 학습지, 교재나 교구를 활용한 놀이를 하였고 영상기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영어를 노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 시간이나 학습의 양, 실행 횟수 등의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였고 단지 유아의 흥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은 총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첫째,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원이 80명으로(63%)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미시행 인원은 47명으로(37%) 교육을 시행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의 수치로서,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영어교육 시행은 주로 유아교육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 응답 중 67명이(52.8%) 응답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발히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김용환 2012, 배미숙, 서현아 2011). 이것은 또한, 다수의 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은 물론(백지원 2009, 이윤진 등 2014),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의 명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9.0%로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이윤진 등 2014)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고 교육 방향에 대한 제시가 어려워 유아 영어교육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엄마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둘째,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 관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 참여자의 유아 영어교육 시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매우 찬성한다.’ 41명(32.3%) 응답, ‘여건이 가능하다면 찬성한다’ 76명의(59.8%)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단 2건이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점은, 자녀의 나이와 학습수준, 자녀의 나이와 같은 모든 사항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응답자들은 유사하게 찬성의 의견을 내놓으며, 특히 찬성의 이유로 ‘영어교육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63명(49.6%)), ‘가정에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46명(36.2%))를 꼽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찬성의 기초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찬성이 피상적으로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건적 찬성을 보였던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유아 영어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적 측면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노출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영어교육과 영어 노출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게 느끼는 엄마들의 경우에 유아의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노출이나 놀이로 다가가는 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는 엄마들 자신들의 이전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어 학습의 결과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유아기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으려는 엄마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유아의 영어교육에 가장 화두가 되는 실시 나이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영어교육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아의 나이는 만 3세로 나타났으며 만 4세와(김용환 2012) 만 6세나 7세 이후(이윤진 등 2014) 같은 맥락으로 7세가 가장 이상적 나이이며 5세 이상이 적정하다고 보는 연구보다(김혜미 2017) 훨씬 빠른 나이였다.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혜미(2017)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연구 참여자의 나이별 차이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경우 35세부터 49세의 나이별 조사를 하였다는 점, 해당 설문과 인터뷰 참여자가 제7차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만 35세 미만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을 지닌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방식의 영어 학습과 영어를 통한 취업, 진로가 있어야 하는 세대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존 연구의 참여자와는 확연히 다른 응답의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영어교육 방법으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주요 방식으로 TV, 라디오, 직접 구입한 영어교재나 교구, 사설 영어교육 기관과 유아교육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방법을 주로 선택하였다. 특히, 이 중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이 유아의 영어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영어교육을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외부업체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엄마들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마송희 2008). 또한, 기관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정 내에서도 사용하여 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뷰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기존 연구에서 보이듯, 엄마들의 높은 신뢰를 얻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는 영어교육이 좀 더 구체화되고, 유아의 실생활과 유사한 맥락으로 제도 되어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훈련된 영어 전문 교사를 배치하거나 교사의 영어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유아교육 기관의 영어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효한 교육적 함의로 언급될 수 있겠다(김미나 2007, 마송희 2008).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수의 엄마들은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실제적 교육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영어교육 선택 방법으로는 ‘영어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응답 수는 무려 96명이었다(75.6%). 그 다음으로는 ‘영어에 대한 친밀감 느끼기’ 83명(65.4%),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가’의 응답이 44명으로(34.6%)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회화능력을 기르기 위한 말하기 실력 상승의 기초’가 39명이었다(30.7%). 이렇듯 엄마들은 유아의 영어교육 목표에 있어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노력을 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영어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김혜미 2017).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구사하였다. 반복 학습을 통한 영어 단어나 표현을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적 교구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유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노출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취학을 앞둔 자녀의 경우, 기존 엄마들이 영어 학습경험과 유사한 학습지나 영어문제집 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였고, 유아의 경우에는 학습지보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가정 밖에서 학습하는 교육 자료를 통해 엄마들은 가정 내에서 유아의 영어에 대한 꾸준한 자극과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사항에 대해 환류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의 영어학습, 즉,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이어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했던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의 기준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육의 기준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좇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개인적인 미시적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국가적 형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실현되는 언어정책으로 진행되는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보인다(Taylor-Leech and Liddicaot 2014).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엄마표 영어는 자녀의 영어교육이라는 현안에 대한 개인의 의지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적 수준의 행동이며(Higgins and Brady 2016), 거시적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언어교육 관련 정책을 개인이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6). 일반적으로 언어관련 정책이라고 했을 때 많이 다루어지는 하향식 거시적 언어정책의 성패여부는 반드시 이러한 미시적 언어정책을 살펴보아야 정책의 사회적 조화와 화합, 그리고

합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정책 측면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의 거시적 영어교육정책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매우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시적 영어교육정책의 부재로 엄마표 영어교육은 뚜렷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렇게 두 정책 수준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개인적 차원의 영어교육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 영어교육에 대한 상세한 의의나 목표를 수립하여 미시적 수준의 영어 학습에 대한 사항을 엄마들과 유아 교육기관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매우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할 수 있다면 개인 학습의 방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영어 교육에 대한 개인 수준의 교육 형태를 고려한 거시적 수준의 교육 형태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혼란 속에서 자녀의 무분별한 영어교육을 시도하는 비용 낭비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강승지·이연선(Kang, S. and Y. Lee). 2018. 우리나라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A Study on social perception of early-childhood English education based on big data and social network analysis). 《미래유아교육학회지》(*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5-2, 141-168.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Guidelines for the Nurture Curriculum for Ages 3-5*).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7. 『59개 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명칭사용위반』(*Violation of Using the Name 'English Kindergarten' by 59 Infant English Academies*).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8.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Permission of After-School 'Play-Oriented English' at Kindergarten*).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김민화·유연옥(Kim, M. and Y. Yu). 201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영어교육방법과 유아영어교사의 실태(Actual practices of young children's English education method and English teacher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아동교육》(*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4, 153-168.
- 김용환(Kim, Y.). 2012.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실태연구: 양산지역을 중심으로(A Study on Mother's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In the Case of Yangsan Area).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인제대학교(Inje

- University).
- 김태영·이희진(Kim, T. and H. Lee). 2015. 조기영어교육과 초등영어교육의 연구동향: 2000에서 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and primary school English education: Focusing on domestic journal articles from 2000 to 2015). 《한국교육문제연구》(*Korea Education Inquiry*) 33-3, 67-91.
- 김혜미(Kim, H.). 2017.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영어교육 방법(Parent's perception towards preschool children's English education and their ways of English practice). 《영미어문학》(*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126, 171-193.
- 마송희(Ma, S.). 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A model for an integrative English education at kindergarten). 《열린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4, 221-245.
- 박한나(Park, H.). 2017. 유아 문해력 발달을 위한 영어그램책 지도방법 연구: 주디스 쉬케단츠의 교수전략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Method of Teaching English Gram Books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 Literacy: Focusing on Judith Shikedantz's Teaching Strategies).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신라대학교(Silla University).
- 배미숙·서현아(Bae, M. and H. Seo). 2011. 어린이집의 영아조기영어교육 실태 및 원장과 교사의 인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Current condition and perspectives of directors and teachers toward early English education for infants -Focusing on Busan area-).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1-6, 510-521.
- 백지원(Paik, J.). 2009.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Research on the Private English Education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n Korea).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 송미선·박현주·김정준(Song, M., H. Park and J. Kim).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A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parents perception i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어린이미디어연구》(*Journal of Children's Media and Education*) 10-3, 115-134.
- 신동일·심우진(Shin, D. and W. Shim). 2011. 한국 영어교육의 역사적 고찰: 신문기사와 학술자료를 기반으로(Historical review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Using both newspaper articles and academic works).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2-3, 252-282.
- 신동주(Shin, D.). 2007. 유아의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early English experiences on the English learning of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유아교육학논집》(*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11-2, 349-374.
- 신지원(Shin, J.). 2016. 유아 영어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English education mobile applications for young learners).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105-121.
- 심영숙(Shim, Y.). 2018. 초등학교 1-2 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금지 정책에 대한 고찰(A review of the policy banning after-school English programs for first and secon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초등영어교육》 (*Primary English Education*) 24, 31-50.
- 심영숙(Shim, Y.). 2019. 온라인 기사 댓글을 통해 살펴본 유아 영어교육 인식(Exploring public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hrough online news comments). 《사회언어학》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7-1, 89-121.
- 이숙자(Lee, S.). 2001. 가정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A Study on Mothers' Perceptions and Realities Regarding English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at Home).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 이귀옥·우남희(Lee, K. and N. Woo). 2008. 부모변인과 유아의 영어 학습과의 관계 연구(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ariables and their children's English proficiency). 《생활과학연구》 (*Dongduk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13, 73-82.
- 이상기·이창희·박현민(Lee, S., C. Lee and H. Park). 2018. 누리과정 연계 동화와 동요를 활용한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양상 및 효과 분석(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Nuri curriculum-related story and song-based early childhood English program).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 279-301.
- 이석금·이진희(Lee, S. and J. Lee). 2015.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parents' view on English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현대문법연구》 (*Studies in Modern Grammar*) 84, 115-140.
- 이연승·이연정(Lee, Y. and U. Lee). 2018.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Percep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한국유아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0-3, 153-174.
- 이윤진·이규림·이정아(Lee, Y., K. Lee and J. Lee). 2014.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서울: 육아정책연구소(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The Ewha Multicultural Institute). 2010. 『국제 언어 정책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Language Policies*). 국립국어원(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전홍주(Jun, H.). 2011. “유아 영어교육” 에 관한 담론 분석: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 media discourse analysis). 《유아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351-376.
- 정민수(Jung, M.). 2016. 영유아 영상콘텐츠 교육산업의 발전 방안 (Measures to develop image contents for infants in education industry). 《기초조형학연구》 (*Journal of Basic Design and Art*) 17-6, 551-562.
- 최유정(Choi, Y.). 2008.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연구(*Students' and*

- Teachers' Perceptions abou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양대학교(Hanyang University).
- 하연희(Ha, Y.). 2004. 유아의 영어교육 시작연령과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어와 사회성 발달(*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other Tongue and Sociability According to Beginning Age and to English Education Institutions in Early Childhood*).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 황용주(Hwang, Y.). 2011.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Language management policy of Korea - Focusing on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olicy). 《국어문학》(*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0, 23-45.
- 황원길(Hwang, W.). 2004. 동화를 활용한 유아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The Development of a Childhood English Education Program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박사학위논문 (Ph.D Dissertation). 중앙대학교(Chung-Ang University).
- Comer, J. P. and N. M. Haynes. 1991. Parent involvement in schools: An ecological approach.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1(3), 271-277.
- Higgins, R. M. and A. Brady. 2016. Language policy, planning, and enactment: The necessity and empowering potential at the local level.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17(3-4), 242-259.
- Lee, M. 2016. Micro language planning for refugee resettlement language support programs: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5(5-6), 743-752.
- Lee, M., H. Kim and M. Han. 2020. Language ideologies of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Comparison, money, and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42(7), 637-649.
- Liddicoat, A. J. 2014. The interface between macro and micro-level language policy and the place of language pedag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edagogies and Learning* 9(2), 118-129.
- Park, S. and N. Abelman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 Ricento, T. 2000.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2), 196-213.
- Taylor-Leech, K. and A. J. Liddicoat. 2014. Macro-language planning for multilingual education: Focus on programmes and provision.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15(4), 353-360.

Examples in: Korean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Early Childhood